서삼석·신정훈, ‘같은 듯 다른’ 총선 출사표

徐 “서민·농축산인 심부름꾼 역할 계속 할 것”
辛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총선 압도적 승리”
‘3선’ 되면 호남 내부의 정치적 비중 커질 듯

결선투표를 거치는 등 치열했던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전에서 승리한 재선의 서삼석·신정훈 의원이 각각 ‘같은 듯 다른’ 제22대 총선 출사표를 내놓았다.

‘비명(이재명)계’인 서 의원은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입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 없이 ‘서민과 농축산인의 작은 심부름꾼’을 약속한 반면, 이른바 ‘新명계’인 신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을 언급하며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신 두 의원은 똑 같은 재선의원인데다, 지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자칫 양자 대결 가능성이 있었지만 선거구가 21대와 똑같이 유지되는 바람에 ‘둘 중 한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보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두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3선’ 고지에 오를 경우 ▲박지원(해남·완도·진도, 4선)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3선) 의원 등과 함께 호남의 다선 의원으로 정치적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같은 듯 다른’ 행보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 서삼석 후보(영암·무안·신안, 재선)는 21일 오전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서 후보는 “나쁜 법 고치고 좋은 법 만드는 입법 활동과 지역 사업을 뒷받침할 국비 확보는 국회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역할”이라며 “다시 한 번 군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힘 있는 3선 의원이 돼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국회, 당, 시민단체로부터 능력을 검증받았다”며 “2018년 국회 첫 등원 인사에서 밝혔던 ‘서민과 농수축산인의 작은 심부름꾼’ 역할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영암 바이오소재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무안 국립수산종자원 유치, 신안 흑산공항 조기 준공 등 3개 군 주요 발전 사업 추진 ▲인구감소지역법 보완, 최저가격보장제 재추진 등 농산어촌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지역 내 문화·관광 자원 활용 극대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같은 당 신정훈 후보(나주·화순, 재선)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선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지난 19일 신 의원과 경선을 벌였던 손금주 전 의원이 신청한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신정훈 의원을 22대 총선 민주당 나주·화순 후보로 인준했다.

이날 신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자 손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이제 경선의 상처는 뒤로 하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 시기”라며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정훈 의원은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결과에 승복해 주신 손금주 후보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 주신 구충곤 후보, 최용선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검찰 정권에 맞서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총선을 압도적 승리로 이끌어 정권 교체에 교두보를 놓겠다”며 “이를 위해 화합과 포용을 위한 ‘통합선대위’를 구성해 경선에서 함께 한 당원 동지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진수 기자

조국의 외침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오후 고향인 부산을 방문, 부산진구 서면 거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철현·조계원, 1차 공동 공약 발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수시 갑·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조계원 후보가 지난 20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두 후보가 지난 8일 공동선언으로 ‘여수 갑·을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 분열을 종식하고 화합과 상생협력으로 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하나가 되겠다’는 여수시민과의 약속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두 후보는 이날 공동공약으로 ▲여수를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집중 조성 ▲여수전남대학교병원 설립 실현 ▲여수시민 자긍심 회복을 위한 여수 고속도로 건설 등 3개를 제시했다.

이날 주·조 후보는 “화합과 상생협력의 약속을 믿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여수시민 덕분에 두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됐다”며 “여수 갑·을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여수 균형발전을 위해 준비한 공동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여수를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용역’ 결과를 ‘2025년 국가항만기본계획’의 수정계획에 반영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의 신속 추진하며, 정부 해양레저관광 진흥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할 가칭 ‘해양레저관광진흥공사’를 여수시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여수전남대학교병원 설립을 위해 ‘전남대학교병원 여수분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추진해 여수대학교 통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받아내고 시민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중인 ‘여수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여수시민들의 뜻에 부합되는 최적의 결과가 나오도록 도모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해 고속도로 건설에 신속히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진수 기자

소병철 “총선 전 전남권 의대 계획 공표해야”

추진 일정, 전남도와의 협의체 구성 등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정부의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방침과 관련, “정부는 향후 추진 일정과 전남도와의 협의체 구성 등 총선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을 촉구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대 입학 정원이 내년부터 2천명이나 증원되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증원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루 전 회견에서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도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지역 여론이 혼란스런 상황이다.

전남권 의대의 경우 그동안 동부권과 서부권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는 점에서 실제 합의를 이루기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지난 14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 의지를 표한 이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전남 의대설립 방향만 제시하고, 총선 후에는 시일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의대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선 전에 향후 주요 일정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견 수렴을 위한 전남도와의 협의체 구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소 의원은 전남의 30년 넘은 숙원을 풀기위해 의대 신설 공약을 내세운 이래 전남 동서부간 갈등과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위한 캠퍼스 분리 방안을 담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가을에는 전남의 의대 신설을 촉구하고자 삭발식을 통해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소 의원은 “전국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의대 입학 정원도 19년 만에 전격적인 확대를 발표한 상황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는다면 200만 전남도민은 또 다시 낙담하고 전남의 의료 공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을 할 의지가 있다면 총선 전에 주요 일정을 밝히고 의대 신설을 위한 협의체를 공식화하는 등 실질적 추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서동용·권향엽, 간담회 열고 협조 약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20일 권향엽 후보와 함께 기초·광역의원 간담회를 열고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 의원과 권 후보는 “순천·광양·곡성·구례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과 함께 총선에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향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이날 최근 유의미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권향엽 후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으며, 광양보건대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 시·도의원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

서 의원은 “22대 총선 승리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역 기초·광역의원을 중심으로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지역 현안과 정책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